

# 주요 분석 결과

MEASURE OF AMERICA 시리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현황**

2026

모든 로스앤젤레스 주민을 위한 공정한 미래를 향해

[APortraitofLosAngelesCounty2026.pdf](#)

## 주요 분석 결과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웰빙과 기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Measure of America가 발간한 *A Portrait of Los Angeles County 2017*(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현황 2017)의 후속 연구로, 2017년 보고서는 카운티 내 여러 지역 및 인구 집단의 웰빙 순위 지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훌륭한 협업을 통해 탄생한 이 2017년 보고서는 로스앤젤레스 주민의 웰빙을 향상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기관에서 이 보고서를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A Portrait of Los Angeles County 2026*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현황 2026)은 업데이트된 지수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웰빙 목표를 향한 카운티의 진전 정도를 평가합니다.

수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치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적 경험, 통찰,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운티는 일부 웰빙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산불, 급격히 상승하는 생활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연방 재정 지원의 대규모 삭감,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 등 시급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영하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로스앤젤레스 주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미국 인간개발지수(HDI) 소개

로스앤젤레스 시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Measure of America는 미국 인간개발지수(American 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사용합니다. 이 지수는 자유롭고 기회 있는 삶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삶, 지식에 대한 접근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종합 지수입니다.** 미국 HDI는 UN(United Nations)에서 개발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 국민들의 웰빙을 측정하는 표준으로 인정받는 인간개발지수를 토대로 합니다. Measure of America는 HDI 점수 산출을 위해 건강(출생 시 기대수명), 교육(학교 등록률 및 최종 학력), 소득(개인 중위 소득)에 관한 최신 공식 정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 보고서는 LA 카운티 내 115개 도시 및 비법인 지구, 로스앤젤레스시 내 34개 커뮤니티 계획 구역, 주요 인종 및 민족 집단, 여성과 남성, 미국 출생자와 해외 출생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HDI 점수를 개별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웰빙과 기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미국 인간개발 지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여성의 HDI

점수(5.91)는 남성의

점수(5.40)보다 약 0.5점

높습니다.

이 차이는 여성이

건강 및 교육 구성

요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인합니다.

## 미국 인간개발지수(HDI)

2017년과 2026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현황 보고서는 각각 2015년과 2023년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 사이 LA 카운티의 미국 인간개발지수 점수는 5.43에서 5.6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폭의 개선을 의미하나, 목표였던 1.0점 상승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 점수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평균인 5.82보다 약간 낮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여성의 HDI 점수(5.91)는 남성의 점수(5.40)보다 약 0.5점 높습니다. 이 차이는 여성이 건강 및 교육 구성 요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인합니다. 모든 주요 인종 및 민족 집단에서 여성의 HDI 점수가 남성보다 높지만, 그 격차의 크기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카운티의 인종-민족 집단 중 흑인 여성(5.33)과 흑인 남성(4.07) 사이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큼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여성의 HDI 점수는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여성의 점수는 7.8% 증가한 반면 남성은 4.4% 증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민 중 미국 출생자와 해외 출생자 간에도 상당한 웰빙 격차가 존재합니다. LA 카운티의 미국 출생 주민의 점수는 6.06인 반면, 해외 출생 주민의 점수는 4.95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로스앤젤레스 주민의 기대수명이 더 길지만, 현저히 낮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HDI 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점수는 인종 및 민족별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LA 카운티의 하와이 원주민 및 기타 태평양 도서민(NHOPI)은 4.01로 최저 수준의 HDI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NHOPI계 주민의 HDI 점수도 2015년 4.44에서 하락하여, 점수가 감소한 유일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백인 주민의 점수는 2015년과 2023년 사이 5.9% 상승하여, 가장 큰 웰빙 개선을 보였습니다. 카운티의 6대 주요 인종 및 민족 집단 중에서는 아시아계 주민이 7.68로 최고 수준의 HDI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의 아시아계 주민은 단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세부 집단별로 분석하면 아시아계 주민의 웰빙 순위는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최고 점수 집단과 최저 점수 집단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인도계 로스앤젤레스 주민은 9.38로 최고점을, 캄보디아계 주민은 4.76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HDI 점수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더 큰 격차가 드러납니다. Brentwood-Pacific Palisades는 10점 만점에 9.58점으로 가장 높은 HDI를 기록했습니다(이 데이터는 해당 지역 상당 부분을 황폐화한 2025년 1월 팰리세이즈 화재 이전의 수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동부의 경우 3.0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LA 카운티 5가지 분류"

"LA 카운티 5가지 분류" 체계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도시, 인구조사 지정 지역 및 로스앤젤레스시의 커뮤니티 계획 구역을 HDI 점수에 따라 "LA 카운티 5가지 분류"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HDI 점수가 유사한 지역사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현실 및 기회 측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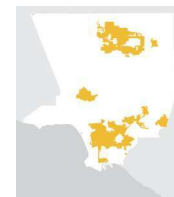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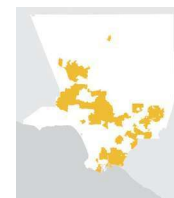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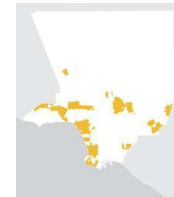
**빛나는 LA(Glittering LA):** LA 카운티 인구의 2%에 해당하는 194,500명이 거주합니다. HDI 점수 9.0 이상의 지역으로, 로스앤젤레스시 내 2개 주거 지역,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5개 도시, Verdugo 산맥 기슭의 1개 도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류층 고립지 LA(Elite Enclave LA):** 카운티 인구의 15%인 약 1,461,70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HDI 점수가 7.0에서 8.99 사이인 지역사회가 포함됩니다. 상류층 고립지 LA를 구성하는 32개 지역 중 대부분은 카운티 외곽에 위치하며, 사우스베이에서 시작해 해안을 따라 북쪽의 산타모니카 산맥까지, 동쪽으로는 버두고 지역과 샌가브리엘 벨리까지 이어집니다.

**메인 스트리트 LA(Main Street LA):** LA 카운티 5가지 분류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부분 로스앤젤레스 주민의 거주 지역입니다. HDI 점수는 5.0에서 6.99 사이이며, 카운티 남부와 동부의 교외 지역, 북쪽의 산타클라리타 벨리와 샌퍼낸도 벨리, LA 분지 북부의 로스앤젤레스 시 지역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LA(Struggling LA):** 카운티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3,823,700명이 거주하여 LA 카운티 5가지 분류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HDI 점수는 3.0에서 4.99 사이이며, 전체 LA 카운티보다 낮은 수준의 웰빙을 보입니다. 주민의 약 36.3%가 해외 출생자로, 이는 LA 카운티 5가지 분류의 주민 중 가장 높은 해외 출생자 비율입니다.

**위태로운 LA(Precarious LA):** 2017년 보고서에서는 약 3%의 LA 카운티 인구가 HDI 3.0 미만 지역인 다쿠다히(Cudahy), 웨스트몬트(Westmont), 레녹스(Lennox), 이스트 랜초 도밍게즈(East Rancho Dominguez), 플로렌스-그레이엄(Florence-Graham), 로스앤젤레스시의 남동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현재 HDI 3.0 미만에 해당하는 도시, 비법인 지구 또는 커뮤니티 계획 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건강

주요 분석 결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집단과 짧은 집단  
사이에는 무려  
15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HDI의 건강 요소는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으로 측정됩니다. 2019~2023년 사망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LA 카운티에서 태어난 아기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년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나 미국 평균보다 길지만, 2010~2014년 데이터를 사용한 2017년 보고서의 기대수명과 비교 시 **1.6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약물 과다복용 사망 증가, 심혈관 질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집단과 짧은 집단 사이에는 무려 15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시아계 로스앤젤레스 주민은 86.2년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긴 반면, 하와이 원주민 및 기타 태평양 도서민(NHOPI)의 기대 수명은 71.2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면, 모든 인종 및 민족 집단에서 2017년 보고서 대비 기대수명이 감소했습니다. 기대수명 감소폭은 로스앤젤레스 주민 중 백인 집단이 가장 작았으며, 라틴계 집단이 가장 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및 미국 전체와 마찬가지로, **LA 카운티에서도 모든 주요 인종 및 민족 집단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더 깁니다**.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남성보다 6.1년 더 깁니다. 아시아계 여성은 88.6년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긴 반면, NHOPI 남성은 65.9년으로 가장 짧아, 두 집단 간 격차는 20년 이상에 달합니다.

**해외 출생 LA 카운티 주민은 미국 출생 주민보다 평균 3.6년 더 오래 살지만, 기대수명 감소 폭은 더 컸습니다**. 2010~2014년 기간 해외 출생자의 기대수명은 4.2% 감소한 반면 미국 출생자는 0.8% 감소에 그쳤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불균형적인 영향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카운티 내 도시, 인구조사 지정 지역, 로스앤젤레스 시 커뮤니티 계획 구역을 기준으로 보면, **2019~2023년 기간의 기대수명은 웨스트우드(Westwood) 88.1년, 앤텔로프 밸리(Antelope Valley)의 선 빌리지(Sun Village) 71.8년으로, 그 격차는 16.3년에 달합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85.6년 이상)은 주로 웨스트사이드와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지역(76.9년 이하)은 대부분 앤텔로프 밸리, 게이트웨이 시티즈(Gateway Cities) 지역,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위치합니다.

# 교육

## 주요 분석 결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

전반적으로 LA 카운티는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교육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학교 등록률과 최종 학력 데이터를 결합한 교육 지수는 약 **10% 상승하여 4.96에서 5.46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 등록률은 정체된 반면, 최종 학력은 유의미하고 고무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고등학교 졸업장 및 학사·대학원 학위 취득률이 주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LA 카운티 여성의 교육 지수 점수는 남성보다 높으며(5.66:5.26)**, 학교 등록률 및 학위 취득률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교육 점수는 2015년 이후 더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는데, 여성의 점수는 11.0% 증가한 반면 남성은 9.1% 증가했습니다.

카운티의 전체 교육 지수 점수로 인해 인종 및 민족 집단 간 상당한 격차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 지수를 기록한 그룹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주민 중 백인의 점수가 7.62로 가장 높고**, 아시아계 주민의 점수는 7.56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입니다.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NHOPI, 라틴계 주민은 모두 카운티 평균보다 낮은 교육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라틴계 주민은 3.29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5세 이상 라틴계 성인의 1/3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며, 학사 학위를 보유한 라틴계 성인의 비율은 16.5%로 카운티 전체 평균인 36.6%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한 격차는 과거의 차별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현재 존재하는 편향 및 자원 접근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지수 점수를 기록한 지역과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존합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가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시의 웨스트우드(Westwood) 지역은 9.91로 최고점을 기록한 반면, 로스앤젤레스 남동부에 위치한 메이우드(Maywood)는 1.67로 카운티 내에서 최저 교육 지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 고립률(16~24세 중 취업도 재학도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웰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LA 카운티의 청소년 고립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립률이 가장 높은 지역 집단과 **가장 낮은 지역 집단의 격차는 17%포인트에 달합니다**.



**학교 등록률은 정체된 반면, 최종 학력은 유의미하고 고무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라틴계 여성의  
소득은 모든  
성별·인종 조합 중  
최저 소득인  
\$31,800로, 이는  
백인 남성보다  
무려 \$48,500  
적은 금액입니다.

## 소득

주요 분석 결과: 적절한 생활 수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일반적인 근로자 소득은 약 \$44,600로, 캘리포니아주 중위 소득인 \$48,100보다 \$3,500 적은 금액입니다. 개인 중위 소득은 2017년 보고서 이후 \$39,500에서 \$44,600(2023년 달러 기준 인플레이션 조정 값)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증가했지만, 주택, 보육, 식품,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 비용이 소득 증가분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백인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70,200로, 카운티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모든 인종·민족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아시아계 주민의 소득도 백인 주민보다 \$13,700 낮습니다. 라틴계 주민의 소득은 \$35,900로 최저 수준입니다.

- 성별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소득 격차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반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성의 연간 소득은 여성보다 \$9,300 높으며(남성 \$49,700, 여성 \$40,400), 백인 근로자의 성별 소득 격차가 모든 인종·성별 조합 중 가장 큼니다. 백인 남성의 소득은 백인 여성보다 \$21,000 높습니다. 모든 인종·민족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지만, 로스앤젤레스 흑인 주민 집단은 예외적인 수치를 기록합니다. 흑인 여성의 연간 소득은 흑인 남성보다 약 \$600 높습니다. 라틴계 여성의 소득은 모든 성별·인종 조합 중 최저 소득인 \$31,800로, 이는 백인 남성보다 무려 \$48,500 적은 금액입니다.
- 카운티에서 최상위 소득을 기록한 10개 지역은 태평양 연안과 샌가브리엘 산맥 외곽 지역에 위치합니다. 반면 최저 소득을 기록한 지역은 대부분 카운티 중심부에 위치하나, 예외적으로 웨스트우드(Westwood)는 UCLA 학생들의 영향으로 낮은 중위 소득을 기록합니다(학생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훨씬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에스테이트스(Palos Verdes Estates) 지역의 근로자 평균 소득 \$120,200로, 카운티 중위 소득의 2.5배 이상이며, 이 수치는 웨스트우드를 제외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인 쿠다히(Cudahy)의 4배 이상입니다.
- 주거비 부담은 카운티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유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의 모든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중위 소득을 버는 주민조차 주거비 부담 없이 중위 주거비를 감당하려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31개 지역에서는 중위 급여 근로자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주당 80시간 이상, 즉 일반적인 근무 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일하는 상황입니다.

# 행동 의제

## 모든 로스앤젤레스 주민을 위한 공정한 미래를 향해

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교육, 건강, 소득의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현황 2026 자문위원회는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주민의 윤택한 생활에 필요한 안전성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행동 의제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여러 번의 대화를 바탕으로 도출된 이 의제는 카운티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합니다.

- 로스앤젤레스 주민의 웰빙 격차 해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웰빙 수준은 인종 및 민족, 성별, 이민 상태,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주거 상황 등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정책과 프로그램은 기대수명, 중위 소득, 교육 성과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모든 주민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지만,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 집단별로 직면한 건강, 교육,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 아동과 가족의 웰빙이 위협받는 지역 우선 지원** 태어난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 안정적인 일자리, 경제적 안정 및 건강한 식품·안전한 공공 공간·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별 웰빙 격차는 상당하며, LA 카운티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은 풍부한 자원을 누리는 반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LA(Struggling LA) 지역처럼 웰빙 및 기회 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투자 및 프로그램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이후 웰빙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지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 예방 중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행.** 실업, 노숙, 만성 질환, 기후 관련 재난 등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접근성 높은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 전환 프로그램, 기후 위기 회복 전략, 임차인 보호 및 저렴한 주거 정책 등 현재 시행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예방 중심 접근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처럼 핵심적인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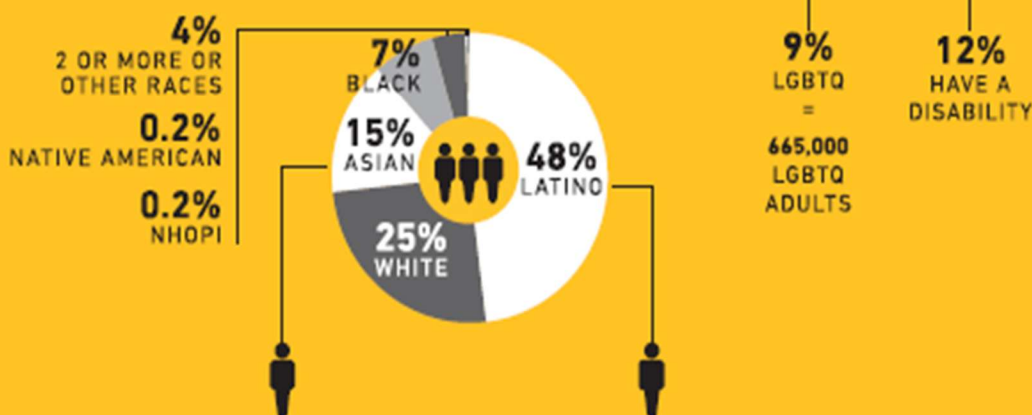
우리는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권층의 지역이 누리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소년과 아동이 동일한 기회를 누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롱비치 주민

# Who Are We?

Los Angeles County Population



9%  
LGBTQ  
=  
665,000  
LGBTQ  
ADULTS

12%  
HAVE A  
DISABILITY

## ASIAN SUBGROUPS



## LATINO SUBGROUPS



66%  
US-BORN

34%  
FOREIGN  
BORN



24%  
LIMITED ENGLISH  
PROFICIENCY



52%  
OF CHILDREN  
HAVE AT LEAST ONE  
IMMIGRANT PARENT